

마틴 루터 킹과 미국 인권 운동*

박 홍 규**

I. 노예, 인종, 흑인

지난 해 말 ‘주제로 보는 역사 시리즈’의 첫 권으로 <끝나지 않은 노예의 역사>라는 책이 나와서 놀랐다. 노예 역사를 세계사 총서의 첫 권으로 내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청소년용 책에서 말이다.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노예의 역사가 어떤 흥미를 줄 수 있을까? ‘주제로 보는 한국사 시리즈’의 첫 권으로 노예에 대한 책이 나온다면 우리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 역사에 노예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조차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 역사에도 노예는 있었다. 그것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엄청 많았다. 수 백 년, 아니 수 천 년 동안 세계 인구나 한반도 인구의 반 이상이 노예였을지도 모른다. 역사학에서는 노예를 농노나 노비 등과 구별하지만 그런 엄밀성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사전에서 풀이하듯이 ‘남에게 자유를 빼앗겨 부림을 받는 개인이나 계층’을 노예라고 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인격으로서의 권리와 자유 없이 주인의 지배하에 강제·무상으로 노동하며 또 상품으로 매매·양도의 대상이 되는 인간’이라고 정의해도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문제는 노예가 역사의 유물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여전히 많이 말이다. 여러 책이 그것을 말하지만 위 책 역시 소련, 나치 독일, 중국, 북한과 쿠바 등에 여전히 노예가 있다고 한다. 다행히도 남한은 제외되어 있지만, 노예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노동은 남한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이 비준하지 않고 있는 강제노동철폐조약에는 노동조합원이 파업을 이유로 감옥에서 징역형을 살게 되면 이를 강제노동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이 있으며, 그래서 그 조약을 여태 비준하지

* 투고일자 : 2013. 6. 8 심사일자 : 2013. 6. 18 게재확정일자 : 2013. 6. 28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양반의 후손이라고 하는 지금, 한국 역사에 노예가 상당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역설일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내 선조가 양반이 아니라 노예였다고 해도 무방할 뿐만 아니라 지배자인 양반이 아닌 피지배자인 노예의 후손인 것이 부끄럽기커녕 도리어 자랑스럽다. 내가 많은 흑인이나 인디언을 친구로 사귀는 이유가 바로 그 점에 있다. 그들은 본래 노예가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었을 뿐이고 엄청난 고통 끝에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자랑스럽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노예의 후손이라면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모두 지배자인 양반의 후손이라는 거짓 가면을 덮어쓰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신중 양반이 되기 위해 피가 터지는 경쟁을 한다. 모두 다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라면 문제가 없을 터인데 여전히 양반-쌍놈-노예 따위의 계급의식이 남아있으니 필요 이상의 경쟁을 한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관념까지 지배한다. 바로 백인-황인-흑인이라는 계급의식이다. 나아가 세계문화에 대한 관념까지 지배한다. 바로 문명-야만-미개 또는 선진-중진-후진이라는 계급의식이다. 여기에는 황인의 백인에 대한 열등감과 흑인에 대한 우월감이 기능한다. 흰 피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양반의 얼굴이고 검은 피부는 농사를 짓는 쌍놈-노예의 피부라는 전통적인 관념 위에서 19세기말 나라가 망하면서 백인-문명-선진-근대, 흑인-미개-후진-전근대라는 등식이 성립되었다. 그래서 백인의 문명이나 선진만이 아니라 백인의 얼굴과 몸까지 닮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세계 최고의 성형수술 비율을 비롯하여 얼짱이니 몸짱이니 하는 것들로 나타나고 있다.

II. 애틀랜타

애틀랜타는 노예의 손자인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의 고향이고 킹의 인권운동이 벌어진 곳이며 그래서 킹의 생가와 모교와 묘지 그리고 기념관 등이 남아 있는 곳이지만 몇 번을 가보아도 그런 곳들에 오가는 사람들은 몇 명의 흑인노인이나 아이들 뿐이어서 놀란다(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을 본 적도 거의 없다). 그곳 주변의 전통적인 흑인 마을은 여전히 흑인들만의 마을이고 백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킹의 인권운동에 반발이라도 하듯이 1960년대 이후 교외의 거대한 지역을 개발하여 값비싼 백인 전용 주거 지역으로 만든 것이 킹 이후의 변화라면 변화랄까? 인권 운운하는 흑인들과 살기 싫어 모두 교외로 나간 것일까? 그러나 그런 움직임은 19세기 후반 남북전쟁 이후부

터 시작되었으니 별로 새로운 것도 아니다.

흑인 인권 운동은 버스에서 흑백 좌석이 분리되어 있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지만 사실은 그 오랜 노예의 역사와 차별의 역사에 대한 반발이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좌석의 동등한 이용이 아니라 버스 자체를 없애고 백인은 고급 자가용, 흑인은 저급 자가용을 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자가용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흑백 차별 문제는 해결되었는지 모른다. 물론 자가용 차 값의 차이는 더욱 극심한 것이지만 말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의 폭락으로 기가 죽었지만 백인들은 자가용으로 한 시간 이상을 달리는 교외에 성 같은 집들을 짓고 살고 있다. 특히 한국인들의 집이 성 중에 성이고 자가용 중에 자가용이어서 흑인들은 물론 백인들에게서도 부러움을 산다.(물론 소수의 한국인들 이야기이지만) 그리고 거대한 한인 상가를 짓고 한인 골프장을 만들어 한국인들끼리 장사를 한다. 점쟁이를 비롯하여 없는 것이 없다. 반면 킹의 시절에 도심지였던 곳은 흑인들의 슬럼처럼 변했고 그 도심에 괴물 같은 코카콜라 회사와 CNN 등의 제국적 상징건물이 배트맨의 유명시처럼 서 있다.

애틀랜타 어디를 가도 사람은 보기 어렵다. 백인은 물론 유색인들도 모두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 몇 십 킬로를 가도 사람은 없고 자가용뿐이다. 버스도 기차도 전차도 자전거도 없다. 이 몰인정한 도시에 킹을 참배하는 마음으로 몇 번이나 찾아온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참 한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킹이 다닌 모어하우스 대학 도서관에서 그에 대한 새로운 연구 자료를 찾아보아도 거의 없다. 이어지는 인권운동도 없다. 애꿎게 한국인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정도다. 흑인들 상대로 돈을 벌어서 백인 마을에서 백인처럼 산다고 말이다. 그런 불만이 언제 폭동으로 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흉흉하다.

1929년 킹이 태어난 집 부근은 애틀랜타 흑인의 중심가로, 원래 고급 흑인 상점이 모여 있었다. 킹 목사의 집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깨끗한 빅토리아풍 건축물로 주변 집들과 비교해보면 그의 집안이 꽤나 잘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집 부근 ‘마침내 자유(Free at last)’라는 킹 연설의 한 구절이 적혀 있는 킹의 묘지가 있는 곳에 ‘비폭력 사회개혁을 위한 마틴 루터 킹 센터’(The M. L. King Jr. Center for Nonviolent Social Change)가 있다. 그곳에 있는 벽화는 킹을 둘러싼 흑인들의 집회 시위 장면을 그린 것인데 그림에 그려진 표어들은 흑인 인권운동의 구호들을 보여준다. 특히 그는 노동자들이 고용 등의 생존권이나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등의 노동운동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는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측면이지만 미국에서도 사실상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킹을 단순한 흑인 차별 반대 운동가로 단순화시키기 위한 전략일지 모른다.



<킹의 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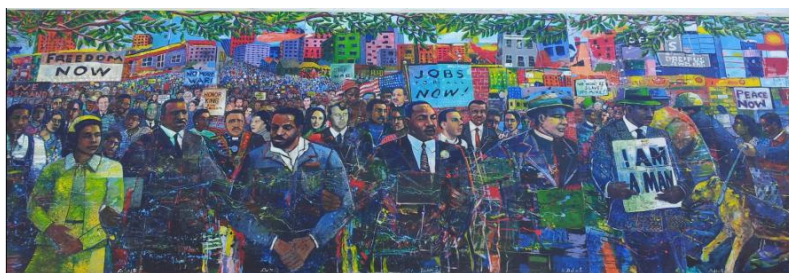
<킹의 묘지>



<킹의 모교인 모어하우스대학에 있는 킹 동상>



<킹 센터에 있는 간디 동상>



<마틴 루터 킹 센터>의 벽화

III. 오! 자유!

잘난 미국을 끝없이 동경하는 자들은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 취급하듯 황인인 우리도 그렇게 본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유 없이 멸시를 당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면 그곳이 아직도 모든 사람에게 자유 평등을 보장하는 세상이 아님을 잘 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 평등은 그들만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은 위선자이거나 사기꾼, 또는 미친 자거나 바보다.

차별은 불의다. 억압은 불의다. 차별과 억압이라는 불의를 없애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지 않는 엘리트 정의론은 거짓이다. 그래서 나는 최근 한국에서 유행한 <정의란 무엇인가>를 믿지 않는다. 정의는 자유다. 그 무엇보다도 자유다. 차별과 억압이 없는 자유다. 무엇보다도 노예가 아니어야 한다. 노예를 인정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따위를 섬기는 썬덜의 엘리트 정의론은 노예 해방의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아님에도 킹이 그렇게도 절실하게 불렀던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로 시작하는 찬송가를 좋아한다. “노예가 되기 전에 무덤에 묻히리라, 내 본향 주님께 돌아가 자유하리라!” 나는 교인이 아니지만 그들이 부르는 자유의 주님을 안다. 노예가, 자신을 착취하는 권력자를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주인이라 불러야 했을 때 마음속에는 주님이라도 있어야 했다. 그리고 그 주님에 의해 언젠가는 자유하리라고 믿어야 했다.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권력자도 착취를 하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했지만 노예들은 그 착취의 주님이 아니라 자유의 주님을 믿고 섬겼다. 몇 백 년 전 기독교가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노예나 노예 같은 사람들이 그러했다. 이 땅에는 노예가 없었다고? 무슨 소리야? 노비는 노예가 아닌가? 한 때는 인구의 반 이상이었는데 이 땅에 노예가 없었다고? 노예가 해방된 적이 없으니 노예가 없었다고? 나는 1960년대에도 노비 같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사라졌다. 어디로 갔을까?

잘난 미국에서도 그랬다. 저 자유의 찬송가는 1960년대 킹을 비롯한 흑인들이 부르던 노래였다. 그들은 우리처럼 사라지지 못했다. 얼굴에 표가 났기 때문이었다.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검은 얼굴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노예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주인과 얼굴이 같으니 말이다. 어찌면 나도 노예였을 것이다. 언젠가 내 조상 중 누군가는 노예였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우리 모두 양반 행세를 하지만 몇 백 년 전에는 대부분 노예였다.

지금 우리 모두 그렇게 노예였음을 당당하게 말하고 다시는 인간을 주인과 노예로 구분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함께 주장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좀 더 빨라질 터인데 모두들 거짓 양반 행세를 하며 제보다 못산다고 쌍놈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니 세상이 끝없이 시끄럽다. 그래서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로 시작하는 찬송가가 끝없이 울리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현대사다. 그래서 킹은 우리의 현대사다.

킹은 미국의 거짓 역사에 불을 질렀다. 우리도 우리의 거짓 역사에 불을 질러야 한다. 우리는 양반의 새끼들이 아니다. 진짜 양반의 새끼라도 이제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러니 더 이상 거짓 족보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모두 쌍놈이라고 커밍아웃을 해야 한다. 킹은 흑인 노예도 그 후손도 인간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I am a Man. I am a Woman. 그것이 킹의 처음이자 마지막 말이었다. 그야말로 인간선언이다. 인권선언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자기 선언이다.

IV. 몽고메리

미국 남부의 앨라배마 주에 있는 몽고메리 시는 남북전쟁 전에 남부 연합군의 수도로 1861년 남부 연합국 대통령이 그곳에서 취임 선서를 했던 역사적인 곳이다. 수도는 그 뒤 버지니아 주의 리치몬드로 옮겨졌지만 남부를 상징하는 곳으로서의 의미는 여전히 뚜렷하다. 당시 대통령이 세 달 살았던 관저가 지금도 관광지로 남아있지만 그 사진을 여기 실을 필요는 추후도 없겠다.

1955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흑백 분리주의의 철폐를 요구하며 흑인들이 승차 거부운동을 벌인 사건이 그곳에서 터진 것은 그런 역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 운동이 흑인 민권운동의 시작이었음은 물론이다. 사건의 발단은 1955년 12월 1일 파크스(Rosa Parks)라는 흑인 여성이 시영버스의 백인 좌석에 앉았다가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시내버스에서의 흑백 분리’를 규정한 몽고메리 시 조례를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면서 비롯되었다.

시영버스에 대한 불만은 파크스만 아니라 모든 흑인이 가진 것이었다. 흑인은 버스 앞문에 올라 10센트의 요금을 낸 뒤 내려 뒷문으로 다시 타야 했다. 그런데 흑인이 뒷문에 다시 타기 전에 출발하는 백인 운전수도 많았다. 또 빈 좌석이 있어도 그곳이 백인 전용석이면 흑인은 앉을 수가 없었다. 승객이 흑인만으로 만원이어도 백인 전용석에는 앉을 수가 없었다. 반면 백인 전용석에 백인이 모두 앉은 뒤 백인이 타는 경우에는 백인석 뒤

흑인석에 앉은 흑인은 즉각 일어나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했다.¹⁵⁾

몽고메리 시 조례는 버스 운전사에게 경찰과 동등한 권한을 부여했다. 즉 1952년 조례 6장 17조에서는 “시를 달리는 버스를 담당하는 자는 실제로 버스를 운행할 때 앞 조를 실행하기 위해 누구나 시 경찰관의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그 ‘앞 조’란 버스 속에서 운전사가 백인과 흑인을 ‘동등하지만 별도’의 좌석에 앉도록 하는 것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한 조항이었다. 이 조항에 의해 운전사는 백인석에 앉은 파크스가 자기 지시에 따라 좌석에서 일어서지 않았으므로 체포했다.

파크스의 체포는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의회(NACCP) 의장인 닉슨(E.D. Nixon)에게 재판 투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파크스 이전에 체포된 여성이 3명 있었으나 재판 투쟁에 나설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12년 간 닉슨의 비서를 지낸 파크스의 경우는 달랐다. 닉슨은 흑인 교회의 목사들과 다른 승차 거부운동을 벌이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몽고메리 진보연합(MIA)을 구성한 뒤, 킹 목사를 의장으로 추대하고 본격적인 승차 거부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간디의 비폭력 정신과 그리스도교 교리에 의거해 폭력 없는 시위를 전개하여, 5만여 명에 달하는 흑인들을 시위에 참여하게 하였다. 그러나 흑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이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시위는 장기전으로 돌입하였다. 이후 흑인들은 직장을 잃거나 해고 위협을 받았고, 카풀제를 자원한 운전자들은 면허증이 말소되거나 보험이 취소되는 등 갖은 불이익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음 해 킹 목사가 구속되면서 승차 거부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결국 1956년 6월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도 버스의 인종차별이 헌법 14조의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자 승차 거부운동은 종결되었다.

이 사건의 승리를 계기로 미국 남부지역에서도 흑인들의 조직적인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뒤에 일어난 모든 흑인 시위 역시 이 사건을 본보기로 했다는 점에서 미국 흑인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킹 목사가 이름을 얻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다.

15) Martin Luther King, Jr., *Stride toward Freedom: The Montgomery Story*, Harper & Brothers, 1958, pp. 40-41.



〈시위하는 킹 목사와 동료들〉

V. 버밍엄

미국 앨라배마 주의 버밍엄은 지금도 흑인 비율이 74%로서 애틀랜타보다 높지만 과거에는 더욱 높았다. 그곳에 살던 백인부르주아들은 1920-30년대부터 그곳과는 별도의 자치체들인 교외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노예 출신인 흑인들은 물론 프롤레타리아 백인들과도 별도로 살았다.¹⁶⁾ 그런 분위기 속에서 1929년 대공황이 터지자 흑백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연대했으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 연대는 붕괴되었다.

1950년대 초에 마지막 광산이 폐쇄되고 US철강회사가 반세기 동안의 적극적인 확장을 정지하자 기업측은 백인 중산층과 결탁하여 저임금, 저세금, 한정된 행정서비스라는 정책을 펼쳤다. 저임금 정책에 의해 흑백 모두 임금이 낮아진 가운데 인종차별에 의해 흑인의 임금은 백인보다 더욱 낮아졌다. 게다가 KKK단과 경찰 등 흑인을 위협하는 백인들의 폭행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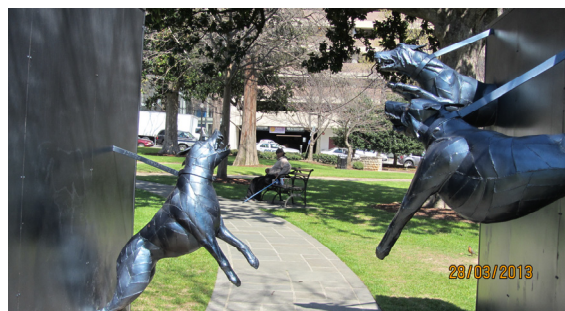
1963년 버밍엄에서 킹 목사를 비롯한 남부기독교 지도자회의(SCLC)가 활동을 재개했다.¹⁷⁾ 킹은 항의의 데모 때 스스로 버밍엄 시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구치소의 독방에 1주일간 투옥되었다. 대학생들의 시위에 이어 5월 2일 6세의 아이를 포함한 1천 명 이상의

16) Dan T. Carter, *The Politics of Rage: George Wallace, the Origins of the New Conservatism and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Politics*, Louisiana University Press, 2000, p. 116,

17) Martin Luther King, Jr., *Why We Can't Wait*, Signet Classic, 2000, p. 36.

청소년이 참가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959명의 아이들이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튿날, 2,500명의 아이들이 데모에 참가하자 경찰은 고압 호스로 물을 뿌려 해산을 시도했고 셰퍼드 개들을 풀어 위협했다. 그래도 시위는 이어졌고 경찰의 만행도 계속되었다.

버밍엄 중심가에 있는 캐리 잉글랩 공원에는 그곳에서 벌어진 인권운동을 기념하는 조각들이 있다. 1992년 제임스 드레이크(James Drake)가 만든 조각들은 당시 경찰서장의 명령으로 흑인 시위 참가자들이 고압 호스로 물세례를 받는 모습, 경찰과 독일산 셰퍼드 개들이 시위대를 위협하는 모습 등을 담고 있다.





그 행진은 특히 수 천 명 아이들이 참가했고 그 뒤 감옥에 갇힌 것으로도 유명하다. 지금 ‘자유의 걸음’(Freedom Walk)이라는 이름으로 공원에 그대로 남아 있는 그 길을 따라 공원에 온 사람들은 50년 전의 위대한 행진과 진압의 야만을 경험할 수 있다. 공원 입구에 있는 킹 목사의 동상은 공원 앞 교회 쪽을 보고 있는데 그 눈길은 1963년 9월 15일 4명의 흑인 소녀가 희생된 교회 지하를 향하고 있다.

이상의 조각들은 1992년 공원 앞의 ‘버밍엄 인권연구소’가 개관되면서 함께 설치되었다. 연구소에는 1963년의 버밍엄 흑인 인권운동을 비롯한 여러 자료가 전시되어 있고 연구와 함께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공원의 이름인 켈리 잉글랜드는 1차 대전에 해군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한 소방사로서 1932년 그를 기념하여 붙여졌다.

VI. 킹 다시 보기

나는 60평생 종교를 믿은 적이 없지만 마틴 루터 킹을 비롯한 몇 기독교인으로 인해 기독교인이 될 생각을 한 적은 있다. 반면 그런 불교인을 본 적이 없어 불교를 믿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싸우지 않고 숨어 사는 도시는 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선사를 존경하지 않는다. 유일한 예외가 한용운이기에 그를 존경하지만 그 역시 3.1운동 외에 싸운 적은 없고 3.1운동에서도 선언문 낭독에 그쳤다. 그밖에 그의 <님의 침묵>에 감동을

받은 적도 없다. 그야말로 그는 죽을 때까지 침묵했다.

마틴 루터 킹은 간디와 함께 비폭력의 상징이지만 비폭력이라고 해도 그들의 싸움은 어떤 폭력보다도 강하고 질기며 죽음까지 이어졌다. 그들의 비폭력은 인도의 독립과 미국 흑인의 인권 신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폭력만이 기여한 것은 아니고 인도 독립이나 흑인 인권 신장 과정에는 폭력도 없지 않았으며, 그 폭력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도 문제이다. 가령 우리는 우리의 독립운동사에서 많은 폭력을 본다. 그 단적인 보기가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의 의거들이고, 특히 후자의 뒤에는 김 구 선생이 있었으며 김 구 선생이 지도한 의열단은 명백히 폭력조직이었다.

김구 선생도 간디를 알았으리라. 김구 선생이 간디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으리라. 설령 간디가 일제하 우리에게 자기처럼 비폭력 무저항운동을 하라고 했다 해도 김구 선생 같은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까? 사실 간디는 나치 하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한 적이 있지만 부버나 아렌트는 그것을 거부했다.

반면 간디는 그가 살았던 당시의 미국 흑인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사실 간디는 아프리카, 그것도 인종차별로 가장 유명한 남아프리카에서 15년을 살면서 그 유명한 진실관철투쟁(사티야그라하)을 벌였는데 그 15년간의 상세한 기록을 남기는 가운데 흑인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당시 그곳의 인도인보다도 훨씬 못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을 간디가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심지어 간디는 남아프리카의 원주민과 영국이 싸울 때 영국군에 지원했다. 비폭력을 주장하는 간디에게 참전이 말이 되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간디는 태연하게 비폭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알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분명히 궤변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디의 비폭력 사상 자체를 부정할 필요까지는 없으리라.

킹이 간디의 흑인에 대한 무관심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를 존경해 인도까지 찾아가 그의 무덤에 경배한 적도 있다. 이 점 역시 킹의 비폭력과는 무관할 수 있지만 킹이 간디의 이슬람에 대한 애정과는 달리 아랍인과 싸우는 유대인을 지지했다. 그가 이스라엘 편이었고 이슬람을 싫어했다고 해도 그의 비폭력 사상을 폄하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말이다.

그 점에서도 그는, 이슬람으로 개종한 말콤X나 이름까지 이슬람식으로 바꾼 무함마드 알리와는 달랐다. 이는 단순히 종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말콤X나 알리는 이슬람을 미국 흑인의 본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그 뿌리인 아프리카인이 이슬람이라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여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이었다. 말콤 X 같은 사람은

킹의 비폭력을 비판하고 폭력을 주장했었다. 마틴 루터 킹에 대한 책은 많다. 우리나라에도 많다. 그러나 위에서 몇 가지 언급한 것과 같은 관점에서 쓴 책은 없는 듯하다. 간디도 마찬가지지만 킹도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VII. 맺음말

마틴 루터 킹은 간디를 계승한 비폭력운동가이자 사상가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폭력에 근거했음은 자연을 폭력적으로 파괴하고 선주민을 인디언을 폭력적으로 몰살한 뒤 흑인 노예를 착취하여 고도의 서양문명을 구축한 점에서 알 수 있다. 특히 흑인들은 백인의 폭력에 대해 폭력적으로 저항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시민저항의 창시자인 소로도 그러한 폭력을 옹호했을 정도로 백인의 폭력은 광범하고 심각했다.

미국에서 흑인들이 간디의 비폭력주의를 채택한 것은 킹이 처음은 아니었다. 1909년에 설립된 전국흑인향상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는 1935년부터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법정투쟁을 시작했고, 1942년에 설립된 인종평등회의(Congress of Racial Equality)는 인종격리정책에 대한 비폭력직접행동을 시작했다. 그 결과 1954년 연방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의 분리교육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 공민권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55년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서 시작된 버스 승차 거부운동이었고¹⁸⁾ 이를 킹이 비폭력 시민저항운동으로 이끌었다. 킹은 처음부터 비폭력주의에 선 것은 아니고 도리어 그것을 회피했다. 즉 비폭력운동으로 히틀러를 타도할 수 있었는지를 회의하고,¹⁹⁾ 경찰행동과 전쟁 사이에 실제로 차이가 있는 지²⁰⁾를 회의했다. 그러나 비폭력운동이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기독교윤리와 일치한다고 보고 비폭력운동을 채택했다.²¹⁾

만일 우리가 틀렸다면 이 나라의 대법원이 틀린 것이다. 만일 우리가 틀렸다면 미국

18) Rosa Parks(with Jim Haskins), *Rosa Parks: My Story*, Doal Books, 1992.

19) Martin Luther King, Jr., *Stride Toward Freedom: the Montgomery Story*, Harper & Brothers, 1958, p. 113.

20) Martin Luther King, Jr., *The Papers of Martin Luther King, Jr.*, vol 1,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p. 435.

21) John Ansbro, *Martin Luther King, Jr. : Nonviolent Strategies and Tactics for Social Change*, Madison Books, 2000], pp. 2-3.

헌법이 틀린 것이다. 만일 우리들이 틀렸다면 전능한 신이 틀린 것이다. 만일 우리가 틀렸다면 나사렛 예수는 지상에 결코 설 수 없는 공상주의적 몽상가에 불과하다. 만일 우리가 틀렸다면 정의는 거짓이다.²²⁾

킹의 비폭력 시민저항은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공민권운동에 그치지 않고 “미국이라는 전체 집단의 과학기술체제가 도덕적 혼수상태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 베트남전쟁 반대 등으로 나아갔고 마침내 “미국 전체의 권력체제와 가치 질서를 송두리째 재편한다”는 것이 됐다.²³⁾

마틴 루터 킹은 간디와 함께 비폭력의 상징이다. 그들의 비폭력은 인도의 독립과 미국 흑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폭력만이 기여한 것은 아니고 인도 독립이나 흑인인권신장 과정에는 폭력도 없지 않았으며, 그 폭력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도 문제이다.

22) Martin Luther King, Jr., *The Papers of Martin Luther King, Jr.*, vol 3,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p. 73.

23) 마셜 프레디, 정초능 옮김, 『마틴 루터 킹』, 푸른숲, 2004, 19쪽.